

메시지 2

두 나무와 생활의 두 원칙

성경: 창 2:9, 히 4:12, 고전 2:14-15, 롬 8:4, 6, 엡 4:18-19, 고후 11:3

I. 창세기 2장 9절에 나오는 두 나무, 곧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생활의 두 원칙을 나타낸다.

- A. 이 두 나무는 그리스도인이 서로 다른 두 원칙, 곧 옳고 그름의 원칙이나 생명의 원칙에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 고전 8:1.
- B.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옳고 그름의 원칙, 곧 선과 악의 원칙에 속한 문제가 아니라 생명에 속한 문제이다 — 요일 5:11-13, 20.
- C. 우리는 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새 생명을 얻었을 때, 생활의 또 다른 원칙 곧 생명의 원칙을 얻었다. 우리가 이 원칙을 알지 못한다면, 생명의 원칙을 체쳐 두고 옳고 그름의 원칙을 따를 것이다.
- D.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의 옳고 그름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마다 그 일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부합되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 롬 8:6, 엡 4:18-19.

II.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속생명에 근거한 것이지 외적인 옳고 그름의 표준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생활의 원칙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다.

- A. 우리가 옳고 그름의 원칙에 따라 산다면, 세상 사람들과 같다 — 엡 4:17.
- B. 옳고 그름은 외적인 표준이 아닌 속생명에 의해 결정된다.
- C. 우리는 악한 모든 것을 피해야 할 뿐 아니라, 단지 선하기만 한 모든 것도 피해야 한다.
 - 1.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생명에서 나온 것만을 할 수 있다. 어떤 것들은 악하고, 어떤 것들은 선하며, 어떤 것들은 생명에 속한다 — 요 1:4, 10:10, 요일 2:25, 5:13.
 - 2. 창세기 2장 9절에서 '선과 악'은 하나의 길로서 함께 두어지는 반면에, '생명'은 또 다른 길이다.
 - 3. 선이라는 표준보다 더 높은 표준이 있다. 그것은 생명이라는 표준이다 — 요 11:25, 요일 5:11-12.
 - 4.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표준은 악한 것들을 처리할 뿐 아니라 옳고 선한 것들도 처리한다.
 - 5. 많은 것들이 인간적인 표준에 따르면 옳지만, 신성한 표준은 그것들에 신성한 생명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르다고 판단한다.
- D.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속생명에 근거한다 — 롬 8:2, 6, 10-11.
 - 1. 어떤 그리스도인도 생명을 떠나서는 어느 것도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 요일 5:13.
 - 2. 무엇이든 속생명을 증가시키는 것은 옳은 것이고, 무엇이든 속생명을 감소시키는 것은 그른 것이다.
 - 3. 우리의 길은 옳고 그름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 두 원칙의 차이는 매우 크며, 둘 사이의 대조는 극명하다.
 - 4. 우리가 반드시 질문해야 할 한 가지는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이 올라가는가 아니면 내려가는가이다. 이것이 우리가 선택하는 길을 결정해야 한다.
 - 5.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성한 생명을 만족시킬 것을 요구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일들을 행해야 한다 — 요 1:4, 3:15.
 - 6.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단지 우리가 범한 죄들에 대해서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자주 우리가 행한 선한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
 - 7. 우리의 생활의 원칙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생명에 속한 것이고 어떤 것이 죽음에 속한 것인지 결정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 롬 8:6, 요일 3:14.

III. 우리가 생명의 원칙에 따라 생활하고자 한다면 영과 혼을 분별하고 영을 알아야 한다 — 히 4:12, 고전 2:14-15.

- A. 그 영이신 주님은 우리의 영 안에서 사시고 거하시고 일하시고 움직이시고 활동하시며, 우리는 그 분과 한 영이다 — 고후 3:17, 롬 8:16, 고전 6:17.
 - 1. 우리가 실지적인 방식으로 주님을 알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분을 체험하기를 갈망한다면, 우리의 영을 분별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 고전 2:14-15.
 - 2. 우리가 우리 사람의 영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이해할 수 없고 주님을 따를 수도 없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영으로서 우리의 영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이다 — 요일 2:27, 딤후 4:22.
- B. 우리는 우리의 영과 그 밖의 다른 속부분들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 시 51:6, 겔 36:26, 벧전 3:4.
- C. 옳은 것이든 그른 것이든 우리의 혼 안에서 하는 모든 것은 옛사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혼생명 곧 우리의 자아를 부인해야 한다 — 마 16:24-26.
- D. 우리가 우리의 영을 따를 때, 우리는 주님 자신을 따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 딤후 4:22, 고전 6:17.

IV. 생명의 원칙에 따라 살려면, 우리는 내적인 생명의 감각을 따라야 한다 — 롬 8:6, 엡 4:18-19, 사 40:31.

- A. 생명의 감각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며 실지적이다.
 - 1. 부정적인 방면에서 생명의 감각은 죽음의 느낌이다 — 롬 8:6상.
 - 2. 긍정적인 방면에서 생명의 감각은 힘과 만족과 안식과 밝음과 위로의 의식을 포함하는, 생명과 평안의 느낌이다 — 롬 8:6하.
- B. 생명의 감각의 근원은 신성한 생명(엡 4:18-19), 생명의 법(롬 8:2), 성령(롬 8:11, 요일 2:27),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요 15:4-5),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빌 2:13)이다.
- C. 생명의 감각의 기능은 우리가 타고난 생명 안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신성한 생명 안에서 살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육체 안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영 안에서 살고 있는지를 알도록 하는 것이다 — 고전 2:14-15, 롬 8:8-9, 갈 5:16-17.
- D. 믿는 이의 생명의 성장은 그가 내적인 생명의 감각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달려 있다 — 엡 4:15, 골 2:19, 고전 3:6-7.
- E.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생명의 감각 안으로 들어가, 날마다 생명의 감각의 통제하고 안내하고 지시하는 요소 아래서 살아야 한다 — 롬 8:6, 엡 4:18-19, 요일 2:27.
- F. 우리가 더 많이 영을 따라 행하고 생명의 감각을 따를수록, 더욱더 생명의 원칙에 따라 살게 될 것이다 — 롬 8:4, 6.

V. 우리가 생명의 원칙에 따라 산다면, 옳고 그름에 따라서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에 따라서 일들을 분별할 것이다 — 고후 11:3.

- A. 요한복음은 생명나무가 선과 악의 지식나무와 대립된다는 사실과, 우리가 선이나 악을 주의하지 말고 생명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 요 4:10-14, 20-21, 23-24, 8:3-9, 9:1-3, 11:20-27.
- B. 어떤 것을 분별하는 최상의 길, 곧 분별의 비결은 생명이나 죽음이나에 따라 분별하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모든 것을 생명과 죽음에 의해 분별하고 구별하며,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빼앗는 모든 말을 거절하고, 항상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 안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는 주님의 진정한 사역을 받아들이기를 배워야 한다 — 롬 8:6, 고후 11:3.